

| 제 7 장 |

탈출 국군포로들의
현황 (남한에서)

탈출 국군포로들의 현황 (남한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탈북해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들의 숫자는 2013년 현재까지 78명, 이중 현재 생존자는 67명이다.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탈북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된 대한민국 법령 제7895호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 땅에 정착하면 경제적으로 결코 적지 않은 보상을 받고 있다. (***)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C)을 참고) 여기에 대충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는지 적어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병의 경우는 총 4억원 정도, 하사관은 5억원, 장교의 경우는 8억원까지이며 평균적으로 5억4천만원과 무료 의료혜택을 받는다.

물론 이 돈이 평생을 바친 대가로서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임은 틀림없고, 이 돈만이라도 잘 절약해 쓰면 얼마 남지 않은 노후의 생계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액수이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다. 처음에 국방부에서 이 돈 전액을 정착과 동시에 지불하다보니 평생을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살아온 그들은 돈 관리 능력이 없어 그 큰 금액을 곧 날리고 만다. 많은 경우, 보지도 듣지도 못한 먼 친척까지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느니 혹은 돈을 더 빌려주겠다느니 하여 순식간에 그 돈이 없어지고 대부분의 탈북 포로들은 생활이 아주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돈을 돌려주지 않는 형제 친척 간에 깊은 앙숙의 감정만 남아 더욱더 외롭기만 하다.

그 외에 또한 가장 큰 고뇌는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의 안위다. 탈

북한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북한에 가족들을 그대로 다 놔두고 단신 탈출한 사람들이다. 남한이 비록 고향이라고는 하나 반세기 이상을 떠나있던 고향은 오히려 낯설기만 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님은 다 세상을 떠났고, 낯선 친척들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고향산천에서 비록 굶주림과 사회적인 냉대는 벗어났다손 쳐도 북한에 남겨둔 혈육의 정이 더욱더 그리워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에서 전 인생을 보낸 그들에게 자본주의 제도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점에 혼란스럽게만 느껴지는 것 같았다.

(***필자가 탈북 포로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본 결과 그들에게 너무나 불만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으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면 “왜 내 묘지를 왜 정부가 마련해주지 않느냐?” “왜 병원에 갔는데 돈을 지불해야 하느냐?” “손자가 학교를 가는데 왜 돈을 내라 하느냐” 등이며 필자가 “정착 시 한국정부에서 준 적지 않은 돈은 다 그런 것을 위해 쓰도록 준 것인데 그 돈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면 “일가친척들이 빌려가 돌려주지도 않고 자기도 써버려 돈이 없다” 등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혼란과 이해 부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듯 자유와 풍요와 그토록 그림던 고국도 낯설기만한 각종 문물제도와 남겨두고 떠나온 혈육에 가슴 아리는 정은 그들이 남한에서도 결코 행복하기만 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모두가 다 조국을 지키다가 영어의 몸으로 평생을 정치와 경제적 제도가 판이하게 다른 이국의 땅에서 살아온 그들만이 짊어져야할 어쩔 수 없는 불행한 운명으로부터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지 않을까?